

“제3의 인생 ‘학교밖 인문학’ 시작합니다”



광주 용봉동에 문화공간 '시가 흐르는 마을 풍경' 연 김미자씨



전남대 강사·시 낭송가
오랫동안 꿈꾸던
‘생활속 인문학’ 공간 마련

찾집+커피숍 퓨전카페
강의실·연구실도 갖춰
소규모 문화행사 가능

“강좌·영화 감상·음악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 교류 중심점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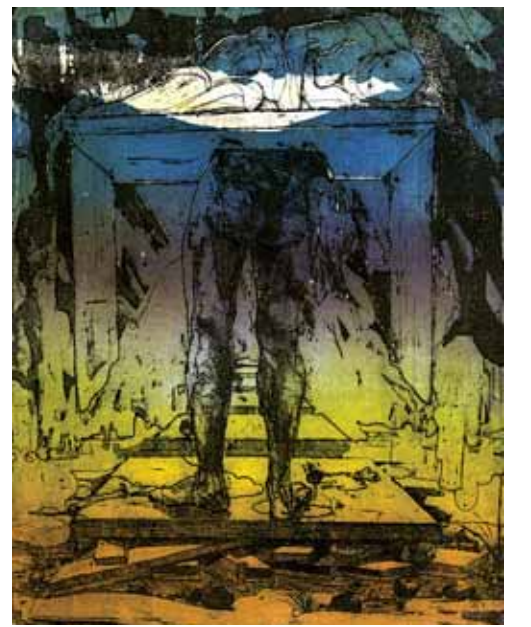
“진절할 미자씨 제3의 인생 문을 열다.”
전남대 강사이자 시낭송가인 김미자(52) 박사는 오랫동안 자신만의 문화공간을 꿈꿨다. 2011년 전남대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7년여 비정규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쳐왔지만 번듯한 연구실 하나 없었다. 학문을 하는 이라면, 비단 학문뿐 아니라 특정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자신만의 공간을 갖길 원한다.
‘제1회 이상설선생 추모 전국시낭송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실력과 시낭송가이기도 한 그녀는 전남대 평생교육원 시낭송 강사도 맡고 있다. 또 계간 ‘문학춘추’에 평론 ‘형식실험과 전통 이야기 마당의 연속성’이 당선돼 평론가로 데뷔했고 진로인성 교육 강사로도 활동중이다.
그런 그녀가 최근에 작정한 모험을 감행했다. 김 박사는 오래 전부터 ‘강단의 인문학’에만 한정하지 않고 생활속 인문학,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문학을 구현하고 싶었다. 용봉지구에 문화카페 겸 인문학 공간 ‘시가 흐르는 마을 풍경’을 연 것은 그 때문이다.
김 박사는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을 오랫동안 그렸다”며 “이곳은 나만의 로망이 깃든 정소를 넘어 지인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이곳에 ‘시가 흐르는 마을 풍경’을 열기로 결심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사실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에 출강하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정교수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대학은 더 이상 학문 탐구나 진리의 상아탑과 같은 고전적인 모습으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학문영역에까지 불기 시작한 무한경쟁은 보이지 않는 배타성을 강화시켰고, 강의 여건은 날로 악화되었다.
“무엇보다 ‘인문학’ 본연의 뜻을 잃어가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인문학(人文學)은 원래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다루는 학문이었어요. 인간(人)을 가장 앞에 두는 것은 세상 속에서 참다운 삶, 인간에 대한 예의를 회복하고 추구하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입신을 위한, 도구적인 학문으로 인문학이 전락하기에 이르렀죠.”
김 박사는 그렇다고 마냥 현실만을 탓할 수는 없었다. 날로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대학에 발을 붙이려고 애쓰는 데서 한발 비껴서 인문학의 정신을 학교 밖에서 실천해 보고 싶었다.
‘시가 흐르는 마을 풍경’은 이름만큼이나 정서적이며

문화적인 느낌이 흐른다. 건물 주위로 나팔꽃, 데이지, 금잔화같은 계절꽃이 수줍게 피어 있다. 외양상 전통차집과 커피숍을 혼합한 퓨전카페이지만, 내부 한편에는 ‘시낭송아카데미’와 ‘브릴리언트 아카데미’라는 강의실과 연구실이 마련돼 있다. 빔 프로젝터가 설치돼 PPT 강의 뿐 아니라 소규모 그룹의 문화 행사도 치를 수 있다.
지금까지 상업적인 측면에서 용봉지구는 유희 이미지가 강했던 게 사실이다. 김 박사는 “이웃만을 추구하지 않고 따뜻한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세심하게 신경 썼다”며 “카페 주위로 약 10m에 이르는 화단을 조성해 이곳을 오가는 이들에게 행복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시가 흐르는 마을 풍경’이 인근에서 문화 공간의 중심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건 그 때문이다.
그녀의 말따따 카페 안에 들어서면 편안하고 잔잔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창가에 놓인 다육이 화분에선 특유의 봄 향기가 물씬 배어나온다. 인근을 오가며 ‘시가 흐르는 마을 풍경’을 눈여겨봤다는 김은미 씨(56)는 “이곳에 들어서선 순간 문화적인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며 “깊이 있으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인문학 카페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이곳에서는 전문 바리스타가 로스팅한 커피 외에도 다양한 차를 맛볼 수 있다. 대추차, 생화차, 생강차, 솔잎차, 국화꽃차, 목련꽃차, 유자차, 홍삼차 등도 준비돼 있다. 다양한 꽃차를 구비하게 된 것은, 언젠가는 전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꿈에 틈틈이 식물을 채취하고 관련 공부를 해왔던 게 계기가 됐다. 이곳에선 연잎밥, 단호박죽, 가래떡이 같은 전통적인 음식도 맛볼 수 있다.
카페 개설을 한 뒤로 첫 주말에는 역사 관련 강좌를 개최했다. 전남대에 출강하는 서극석 박사를 초청해 답사와 관련한 조출한 강의를 열었다.
또한 정기적인 시낭송회와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좌를 열 계획이다. 또한 5월에는 민화 전문가를 초청해 우리 전통 민화에 대한 강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영화 감상, 꽃꽂이, 꽃차 관련 강의도 개최할 생각이다. 또한 정기음악회 등도 열어 이곳을 매개로 지역문화가 교류되고 소통되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학교 안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평생 교육의 시대입니다. 학교 밖의 교육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누구나 이곳에 들르면 원하는 문화와 교육을 접할 수 있고 나아가 정서적 여유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의 010-9212-2077.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5·18 ‘시간의 기록’ ‘노정숙 동판화’ 전

5월 6일까지 메이홀...22점 전시

노정숙(55) 작가는 광주에서 흔히 알게 5·18을 주제로 동판화 작업을 한 여성작가다. 여고 2년때 5·18을 경험한 그는 직접 군인들과 대치하지는 않았지만 시위에 참여한 두살 위 오빠를 찾으러 다니며 수많은 참상을 목격했다.
이후 전남대 서양화과 3학년 때 5·18 잔상을 잊지 못했던 노 작가는 동판화에 당시의 감정을 옮기기 시작한다. 직설적인 목판화에 비해 예술적인 느낌을 더 강조한 작품들이다.
노 작가가 오는 5월6일까지 메이홀에서 ‘노정숙 80년 동판화를 가슴으로 새기다’를 연다. 메이홀이 5·18 주년을 맞아 기획한 ‘시간의 기록’ 시리즈 두번째 전시이자 전남여성플라자의 1980년대 광주·전남지역 여성작가 조명 특별전시와 연계한 자리다.
이번 전시에서 노 작가는 미공개 작품을 포함한 동판화 작품 22점을 선보인다.
노 작가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발표하지 못한 채 30년간 창고에 있던 작품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해소됐다”며 “특히 전시를 준비하며 작품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이름을 붙여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형-84 죽은자의 무게’(1984), ‘형-87 비상’(1987)이 대표적이다. 경찰이 함께 수업을 들으며 감시하던 군사독재시절, 잡혀갈까 무서워 제복하나 제대로 붙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노 작가는 독학으로 동판화를 배운 뒤, 서울 성심여대 대학원 판화학과를 졸업했다. 서울 사람들이 5·18과 관련, 광주사람들을 폭도로 매도하는 상황을 작품으로 옮겼다. 아쿠아틴트(aquatint·동판 부식법) 기법으로 동판화가 가진 음영을 적극



활용하며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행복’(1988)은 열린 문 뒤로 보이는 넓은 초원을 통해 희망을 이야기하고 ‘도시’(1990)는 일그러진 거리 모습을 통해 피폐해지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묘사했다. 또한 전시에서는 2002년 프랑스 CREA2002 현대미술전시 관화부문에 동양인 처음으로 초청되며 선보인 작품도 만날 수 있다.
현재까지 활발하게 프랑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작품들이다.
노 작가는 “그동안 5·18 행사장도 방문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속 회한이 있었다”며 “이번 전시가 회한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의 010-6791-805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갤러리 봄 29일까지 김화영 작가 초대전



세찬 바람을 받고 자라난 나무는 강인한 생명력을 품는다. 그 나무에서 피는 꽃은 한결 더 아름다운 뉘를 뽐낸다.
자연의 이치를 표현하고 있는 김화영 작가 갤러리 봄에서 초대전 ‘바람이 불어’를 29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빨강(Red), 파랑(Blue), 초록(Green) 3가지 색깔을 주제로 ‘바람이 불어’, ‘Garden’ 시리즈 등 25점을 선보인다. 빨강은 강렬한 에너지를, 파랑은 마음 상처를 치유해주는 따뜻한 울, 초록은 만물의 소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대자연 질서를 의미한다.
‘바람이 불어’ 시리즈는 재료와 작업 방식이 눈에 띈다. 먹이 동그랗게 번진 종이에 브러즈, 스틸 등으로 꽃잎을 표현했다. 알록달록한 꽃잎들은 어지러운 인생사와 균형을 찾아주는 절대적인 존재를 나타냈다.
또 레코드를 활용한 ‘가든’ 시리즈를 통해 조형과 회화, 장신구를 접목한 작업도 보여준다. 김씨는 지금까지 광주, 서울, 목포 등에서 개인

전 9회 열었다. 광주디자인센터 개관기념전(2006), 광주디자인비엔날레(2007·2009·2015), 홍콩 아시아 컨템포러리 아트쇼(2014)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문의 010-9078-18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